

베트남, 정유공장 지분 49% 매각

한국·일본·베네주엘라 관련기업 입질 ... 생산능력 7만배럴 확대

베트남 국영 석유회사 PetroVietnam이 베트남 유일의 정유공장 지분 매각에 나선다고 베트남 언론들이 3월 13일 보도했다.

페트로베트남 동쿠아트 정유공장 간부는 정유공장 지분 49%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확인하면서 한국, 일본, 베네주엘라 등 3개 외국기업이 인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.

그러나 아직 지분매각 협상이 타결 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라며 관련기업을 공개하지는 않았다.

페트로베트남 정유공장은 지분 매각대금을 현재 하루 13만배럴인 정유 생산능력을 20만배럴로 끌어올리는 데 투입할 방침이다.

생산설비 확장사업은 앞으로 5-6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5억-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현재 베트남 유일의 정유공장인 동쿠아트 정유공장은 전체 석유제품 수요의 약 30%를 소화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3/13>